

축산업계

소식

식품용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25일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의 수입위생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농림수산부고시제 1996-25호)하였다.

- 다 음 -

식품용란의 수입위생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용란(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 조류에서 생산되어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조란, 난황 및 난백 등을 말한다)은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식품용란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병원미생물의 오염이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 방법으로 살균처리하였음을 수출국정부가 증명한 것에 대하여는 본고시의 적용을 제외한다.

1. 수출국은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gue)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단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장관이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2. 만일 수출국내에서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수출국은 식품용란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재개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식품용란의 생산농장(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서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2개월간 뉴캐슬병의 발생이 보고된 바 없고, 당해농장은 식품용란의 수출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이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결과 뉴캐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캐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식품용란의 생산농장 및 인접 가금사육농장에서는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및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원산 가금군은 Salmonella enteritidis의 징후가 없어야 하며, 수출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이 가금군당 300수 이상의 가금에서 혈액자료를 채취하여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실험실에서 실시한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한 검사(검사방법은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이 정한 방법에 의함)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5.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조류를 사육 또는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전 최소 60일내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위생검사를 받고 그 결과 조류의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6. 식품용란의 포장용기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위생증명서에 서명한 수의관이 수출국 정부의 봉인지에 봉인하여야 한다.

7. 식품용란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중에 수출식품용란 이외의 란, 조류 및 가금생산물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8.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가) 상기 1, 3, 4 및 5에 명시된 사항
- 나)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
- 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 명칭 및 주소
- 라)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 바)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9.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당해 식품용란의 전 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금인플루엔자 최종검사결과 발표

농림수산부는 지난 17일 최근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수의과학연구소의 최종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다 음 -

가금인플루엔자 최종검사결과 요약

<결과 요약>

1. 실험실 검사

- 가.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 7개소
 - 발생확인농장 : 4개소(평택소재 중추사육농장 포함)
 - 혈청검사양성 및 바이러스분리
 - 비발생확인농장 : 3개소
 - 혈청검사음성 및 바이러스 미분리

- 나. 관련부회장 및 병아리 분양농장 : 9개소
 - 가검물(혈액, 병아리, 계란, 계분 등)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분리 시험결과 전농장 비발생확인

2. 역학조사

- 가. 최초발생농장 : 평택소재 중추사육농장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확인
- 나. 인근농장 : 통일농장과 삼현농장에서 바이러스 분리, 전파 확인

3. 병원성 검사

- 가. 동물접종시험

- SPF 닭 접종결과 30%폐사(OIE 규정 : 75%이상 폐사시 강독형)

나. 프라크 생성시험

- 계태아 세포시험결과 의양성

다. 부화란 폐사율시험

- SPF 계란에 바이러스 접종 후 48시간내에 계태아 전체가 폐사

4. 혈청형 검사

- 가. 혈구응집억제반응결과 강독형인 H5, H7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나. 현재로서는 약독형인 H4, H9일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혈청형 동정을 위해 미국내 OIE지정 시험기관에서 검사 필요

5. 결론

- 최근까지 외국의 발생사례를 견주어 보건데 금번 발생이 확인된 가금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폐사율(20~40%)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금후 추진계획>

가. 국내발생 가금인플루엔자 검사 및 시험연구 실시

- 발생지역 인근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 양계장 및 도계장출하 닭의 혈청검사 확대실시
 - 발생지역 및 감염우려지역 중심
 - 양계장 및 도계장출하 닭의 혈청검사 확대실시
 - 발생지역 및 감염우려지역 중심
 -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 간이진단법 연구
 - 조직내 면역조직화학법
- 나. 검사결과 항체양성 및 바이러스가 분리된 농장에 대하여 살처분 실시, 동병의 조기 근절
 - 동 바이러스의 특성상 폐사율이 거의 없는 약독형도 언제든 강독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농림수산부 사무자동화시스템 본격 가동

농림수산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서비스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주전산기 등 관련장비를 증설하고 근거리통신망을 구축, 지난 19일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농축산물 가격 및 수급동향, 사고 및 재해대책, 영농정보, 지시·명령사항, 해외정보, 통계 및 문헌정보 등 업무 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부서간에 신속히 교환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축산물 잔류물질검사 대폭강화

농림수산부는 지난 3일 국내에 반입되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11개 축종의 수입 육류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오는 9월부터 현행 56개에서 1백12개로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신설된 검사항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제정돼 있는 농약 52개품목, 젠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2개 항생물질, 이소메타이딘, 프로벤타졸 등 2개 합성항균제이다.

또한 3종에 국한되어 있던 미생물검사항목은 신규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5개 주요 원인균을 추가 총 8개로 늘어났으며, 전염병검사대상항목은 닭전염성기관염 및 전염성F낭병 등 6종이 포함되어 총 62개 항목으로 늘려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개정

농림수산부는 지난 4일 후라졸리돈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 이버멕틴, 샘두라마이신, 세데카마이신 등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주요 골

자로 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새로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물약품과 대상동물 및 허용량이 변경된 동물약품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으로 사용해 온 후라졸리돈의 경우 발암물질로 확인 됐기 때문이라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표 사용지정 항생물질제제·항균제(닭)

품 목	품 목
나라신	아보파신
나이스타틴	아벨라마이신
나이카바진	아프노시드
노시헵타이드	암프로리움+에토파베이트+셀파퀴
니트로빈	녹사린
나라신+나이카바진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황산네
테스토마이신A	오마이신
테록퀴네이트	에리스로마이신
디클라주릴	엔라마이신
라바텍스	염산로베니딘
라사로스드나트륨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또는
록사손	4급 암모늄염
염산틴코마이신	조렌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치오펜틴
모넨신나트륨	크로피돌
바시트라시아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	염산염 또는 칼슘
리살레이트	키타사마이신
밤버마이신	크로피돌+메칠벤조퀴트
버지니아마이신	인산타이로신
비코자마이신	페니실린
살리노마이신	하이그로마이신B
샘두라마이신	할로푸진은
스페라마이신	황산네오마이신
셀파디메톡신+오르메토프림	황산클리스틴

올 면세유류 공급한도량 전년대비 15.6% 증대

농림수산부는 최근 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도 축산기자재용을 비롯한 농업기계

용 면세유류 공급 한도량을 전년대비 15.6% 늘어난 1백72만8천ℓ를 공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유류 공급은 지난 '86년 부터 농가의 부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유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우선 전유종에 대해 부가세 10%를 면세하고 휘발유 19%, 등유 10%의 교통세와 경유의 특소세 26%도 면세하여 휘발유는 65.8%, 경유 24.2%, 등유 21.6%, 중유 9.1%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제주농업시험장

생력형 표준우사 준공식 거행

제주농업시험장(장장 정선부)은 지난 17일 제주도지사를 비롯 내외귀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산 중산간 목야지를 최대한 활용한 방목위주 소사육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최대의 번식·비육 일괄사육체제시설을 갖춘 생력형 표준우사 준공식을 거행했다.

총 1천2백63평위에 공사비 10억5천3백만원 을 투입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으며, 이번에 준공된 생력형 표준우사는 제주도 한우사육 생력화를 위해 마을공동목장내에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 한국사료협회

품질인증원과 업무협조 약정 체결

(사)한국사료협회(회장 이병석)는 지난 4일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여 배합사료의 품질향상 및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동회는 이 업무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품질향상 및 ISO 9000 품질시스템인증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정보 등 품질인증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소속회원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회가 추천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체결시 소요되는 총 비용의 5%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한국농어민신문사

창간 16주년 및 Korea Agrafood, 계간 농정과 자치 발간 기념대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사장 황민영)는 지난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16주년 및 Korea Agrafood, 계간 농정과 자치 발간 기념대회를 농어민후계자 및 관련인사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부 기념강연에서는 김경일(성암교육원)원장이 "21세기를 사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2부 기념식에서는 우수 지사·지국 표창, 협력기관·업체 감사패 수여 및 '96

년 평가장학금 수여식 등이 있었다.

또한 3부 자축연에서는 황민영 사장의 대회사에 이어 만찬행사를 실시했는데 본회 최준구 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사)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대한가금처리협회에서 명칭변경

(사)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회장 김홍국)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사)대한가금처리협회에서 법인명을 변경했다.

동회의 명칭 변경은 과거 가금처리 단일 기능에서 생산, 처리, 가공, 유통까지 통합경영 개념으로 육계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회원자격도 가금처리업 뿐만 아니라 통합경영 주체와 법인을 추가했으며, 닭고기 연관 산업계의 준회원제도와 특별회원제도를 마련했다.

(사)한국오리협회 중국산 오리육 수입금지 촉구

(사)한국오리협회(회장 장규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금인푸루엔자 발생과 관련 질병의 유입경로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산 오리육의 수입을 중단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22일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동회는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돼있는 가금육 수출국은 최근 3년간 가금인푸루엔자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4년 중국에서 가금인푸루엔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중국산 오리육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

고 나섰다.

한국낙농학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낙농학회(회장 김현욱)는 지난 19일 건국대학교에서 회원 및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해 온 학회활동과 올해 추진해 나갈 학회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동회 부회장에 배동호 교수(영남대), 학회편집위원장에 김기성 박사(식품개발원)를 각각 선임했으며, 감사에 고준수 교수(강원대)와 이기종 연구관(농촌진흥청)을 연임키로 했다.

(사)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전화번호 변경

(사)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는 지난 27일 지역 전화번호 국번의 변경으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 전화 : (02) 3474-7651~4, 3473-3542
- 팩스 : (02) 3474-7650, 3473-3543

(사)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명칭변경

(사)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회장 함영기)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최근 법인명을 (사)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사)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 변경을 하였다.